

<컴패션 뉴스레터 1966년 5-6월호>

김볼 가족

5월 16일, 에드워드 A. 김볼(Edward A. Kimball) 가족이 한국 서울로 떠납니다. 에드는 서울 사무소의 비즈니스 매니저로서의 업무를 시작하며, 지난 2년 이상 주인을 기다려 온 직책을 감당할 것입니다. 컴패션의 모든 가족 구성원은 이 훌륭한 그리스도인 가족을 기도로 지지할 것입니다. 에드와 그의 아내, 엘리너(Eleanor)에게는 사랑스러운 두 딸, 캐럴(Carol)과 로리(Lori)가 있으며, 아이들 또한 에드와 엘리너만큼이나 한국에서 컴패션 사역을 통해 주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보험사 임원에서 해외 선교사로, 에드 김볼의 이야기입니다.

1년 전쯤, 에드 김볼은 뉴욕주의 기독교 캠프에서 자신의 오두막에 앉아 있었습니다. 에드는 이전 사용자가 두고 간 <크리스천 라이프(Christian Life)> 잡지를 무심코 넘겨보다가, 컴패션 서울 사무소의 비즈니스 매니저 채용 공고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공고를 읽으면서 에드는 "이건 나를 위한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한 순간의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에드와 그의 아내, 엘리너는 1년 넘게 하나님께서 전임 기독교 사역자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보험사 임원으로서 쌓은 그의 경력은 그 직책에 대한 훌륭한 배경을 제공했고, 에드는 이 공고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 여겼습니다.

컴패션은 서울에서 사역의 다양한 행정 분야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에드와 같은 배경과 교육을 받은 인재가 오랫동안 필요했습니다. 현장에서의 그의 활동은 컴패션의 사역을 크게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 해 동안 서울에서 충성스럽게 사역해 온 로버트 모건 목사와 그의 가족은 이번 봄과 여름에 오랜 헌신에 따른 귀중한 휴가를 즐기기 위해 귀국할 예정입니다.

에드의 간증은 감동적입니다. 그는 최근에 이렇게 썼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이 지루하다고 누가 말합니까? 드 한(De Haan) 박사님의 라디오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게 된 이후로 제 인생은 끊임없이 흥미진진한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의 두 딸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직계 가족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었고, 불과 몇 주 전에는 우리 이웃의 딸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과 다가올 모든 일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결론짓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짜릿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 전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2년 전 엘리(Ellie)와 제가 우리의

삶을 헌신했을 때, 저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기꺼이 가서 당신을 섬기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많은 기도와 묵상 끝에 주님은 우리를 컴패션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사역을 처음 접한 순간부터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첫눈에 반한 듯한 애정이 느껴졌고, 이제 한국 서울에서 컴패션 사역을 통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에 크게 감격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컴패션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많은 방법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컴패션 가족의 일원이라고 느꼈습니다. 서울에서 우리 자녀들은 동양에서 가장 훌륭한 기독교 선교 학교 중 한 곳까지 걸어서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며 시장에 집을 내놓은 지 3일 만에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엄청난 마음의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서울 사옥 건축계획 승인

서울 신사옥 건설에 대한 이 진행 보고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트랜스월드 항공(Trans World Airlines)의 아서 N. 크누드슨(Arthur N. Knudsen) 씨가 한국 서울에 있는 건설 현장의 계약자와 에버렛 F. 스완슨 기념 건물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서울에 컴패션 본부 건물이 필요했습니다. 서울의 직원들은 임대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는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컴패션의 설립자, 고 에버렛 F. 스완슨 목사님의 소천 이후, 이사회는 새로운 사옥을 서울에 건설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으며, 이 건물은 에버렛 F. 스완슨 기념관으로 불릴 예정입니다. 이 건물은 컴패션의 후원자와 친구들의 기부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컴패션의 모든 구성원들은 건물을 위한 이상적인 위치가 확보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에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건물의 최종 계획은 아서 N. 크누드슨(Arthur N. Knudsen) 씨와 한국인 건축가의 협력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크누드슨 씨는 트랜스월드 항공(Trans World Airlines, Incorporated)의 고객 서비스 및 시설 계획 담당 이사이며, 이번 사옥 신축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사비를 들여 일주일간 한국에 다녀온 컴패션 후원자이기도 합니다. 크누드슨 씨의 헌신적인 노력과 한국 직원들의 수고 덕분에 컴패션은 앞으로 오랫동안 이 사역의 필요에 부응할 사무실 건물을 서울에 갖게 될 것입니다.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에버렛 F. 스완슨 추모기금에 기부해 주신 많은 후원자와 친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건물의 건축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기부금을 "추모기금"으로 지정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정이 없는 이들을 위하여 가정을 제공합니다.

컴패션은 매달 합법적인 입양을 통해 고아들을 그리스도인 한국 가정에 맡깁니다.

컴패션은 한국의 170개 보육원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기독교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해 왔습니다. 그 목표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보육원이 항상 그들의 집이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이상적인 상황은 고아들을 합법적으로 그리스도인 가정에 입양시키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컴패션은 한국에 입양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이 부서의 책임은 어린이들이 합법적인 입양을 통해 한국의 그리스도인 가정에 입양될 수 있도록 조사하고 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3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입양 프로그램을 통해 입양되었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이제 자신만의 부모와 가정이 있는 기쁨을 알게 되었으며,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인 가정이 제공하는 안전과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이유로 인해 한국인 아이들이 미국 가정에 입양되는 것은 권장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가정이 한국 어린이를 합법적으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비용이 들며, 법적 절차도 매우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린이와 부모 모두가 적응의 문제로 극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어린이들이 한국 가정에 입양되어 고향에서 자랄 때는 그만큼 심각하지 않게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컴패션 사역의 이 부분을 축복하시고, 한국의 많은 헌신적인 그리스도인 부부들이 보육원에 있는 어린이들을 더 많이 입양하기 위해 마음을 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녀가 없는 이 한국인 부부는 최근 115호 홀리 프루트 크리스천 보육원(Holy Fruit Christian Orphanage)에서 사랑스러운 두 딸을 입양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온 보고서

이번 <컴패션>을 쓰고 있는 지금 제4회 연례 바이블 콘퍼런스가 서울에서 막 시작되었습니다. 컴패션의 신임 회장인 헨리 하비 목사님은 이번 콘퍼런스와 이후 광범위한 현지 업무를 위해 한국에 와

있습니다. 또한 에버렛 F. 스완슨 여사도 한국에 머물며, 지난 두 달 동안 여러 보육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스완슨 여사의 보고는 보육원 사역에 큰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린이들이 모두 좋은 보살핌을 받고 있으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녀의 지난 한국 방문 이후 많은 보육원들이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으며, 많은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지식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비 목사는 한국에서 컴패션의 전체 사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는 두 달 이상 한국에 머물면서 보육원을 방문하고, 전도사와 원장님들을 만나고, 다양한 행정 업무를 익히게 될 것입니다. 그의 첫 편지는 하나님께서 컴패션의 사역을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사역의 영향은 어린이들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삶의 다양한 단계에 접어들고, 전도사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온 한국 땅이 기독교 국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여전히 주님을 위해 해야 할 큰 일이 있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땅"에서 컴패션을 통해 사역에 힘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진)

- 스완슨 여사는 한국에 있는 동안 50개 이상의 보육원을 방문했습니다.
- 눈이 큰 이 아기는 이제 컴패션 보육원에서 행복합니다.
- 이 소중한 소녀들은 컴패션의 22,000명 어린이들을 대표하는 모습입니다.

이 고아들을 만나보세요: 컴패션 어린이 콰이어

(사진)

실제로 이 고아들을 다가오는 여름과 가을에 미국과 캐나다를 순회하는 동안 만날 수 있습니다. 첨부된 투어 일정을 참조하세요.

컴패션의 제임스 존슨 현지 대표는 다가오는 여름과 가을에 예정된 고아들의 미국과 캐나다 여행 계획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번 호에는 고아들이 제임스 존슨 씨와 함께 출연할 예정인 장소와 날짜가 포함된 전체 일정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일정표를 확인하시고, 가까운 일정이 있을 때 놓치지 않도록 달력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이 여러 도시에서 공연하는 일정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존슨 대표는 미국 전역의 주요 지역을 모두 포함하도록 순회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요청에 응답할 수는 없지만, 어린이들이 여러분의 도시에 방문하기를 원하시면 제임스 존슨 대표(주소: 7774, West Irving Park Road, Chicago)에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적으로나마 추가 요청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지난번 순회공연은 1964년 가을에 진행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국 어린이들이 노래하고 성경을 암송하는 것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어서 이번 2차 투어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들을 데려오십시오. 컴패션 사역을 소개하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순회공연의 성공과 제임스 대표와 일행이 미국과 캐나다를 여행하는 동안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독교 섬김의 기회

모든 그리스도인이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을까?"입니다. 이 질문은 진지한 문제이며, 깊이 고민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컴패션은 기독교 선교 단체입니다. 본부 사무실에는 보람으로 가득한 섬김의 기회가 있습니다. 유쾌하고 기독교적 분위기로 가득한 이곳에는 여성 타자수, 서류 정리원, 서신 담당자를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각 직위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사무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직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구 사항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진실한 열망입니다.

근무 환경은 훌륭하고, 위치는 편리하며, 업무는 매우 보람됩니다. 일손이 부족한 이 시기에 우리는 헌신적인 일꾼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만약 당신이 20세에서 55세 사이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컴패션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기도한 다음 시카고 사무소의 R. E. 스와니(Swaney) 씨에게 편지를 쓰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진)

현지 대표인 제임스 존슨 씨가 미시간 주일학교 협회(Michigan Sunday School Association)에서 주최한 최근 컨벤션에 컴패션을 대표해 참가했습니다. 존슨 대표는 컨벤션에서 30개 전시 중 하나를 담당했고,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컴패션의 사역을 설명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미시간의 많은 뛰어난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컴패션의 사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존슨 대표의 시간은 한정적이지만, 컴패션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그는 항상 기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나 지역에서 컴패션을 소개해 주기를 원하신다면, 제임스 대표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컴패션 우체통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입니다”

친애하는 후원자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응원해 주시는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님께서 저를 위해 해주신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로 부르실 때까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풍성히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가족 모두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 김병채(Kim Byung Chae) 전도사

학생이 후원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친애하는 후원자님께,

후원자님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1월 후원금을 받았으며, 이 금액은 새 학기 등록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후원자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장했음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 오태륜(Oh Tae Ryoon) 학생

원장님의 감사

친애하는 후원자님께,

우리 주님의 귀한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그분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인해 우리 어린이들과 직원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친절한 후원자들이 우리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귀한 후원금으로 올겨울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따뜻한 옷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후원자들은 우리에게 매우 친절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을지 방법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 김금옥(Kim Kum Ok) 원장

더 나은 사역을 알지 못합니다.

친애하는 컴패션 동역자들께,

저는 91호 러빙 라이트 크리스천 보육원(Loving Light Christian Orphanage)의 87번 현재영(Jae Yung Hyun) 어린이의 1966년 후원금으로 120달러의 수표를 동봉합니다. 비전트립을 통해 보육원을 방문하고 한국의 어린 소년을 알게 된 것은 제게 큰 특권이었습니다. 저는 보육원의 훌륭한 지도력에 더욱 만족했습니다. 컴패션은 더없이 훌륭한 사역입니다.

- 일리노이주 에번스톤(Evanston, Illinois), P. G. H.